

실천수행만이 깨달음의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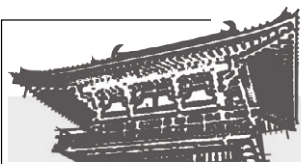
다.
“내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장군죽비를 휘둘렀는데, 한 때 때렸는데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야.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인데, 혹시 죽었나 하고 겁부터 나네요. 그만큼 서로가 믿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지.
향곡 스님은 장군죽비를 직접 만들었는데, 한번 맞으면 맛이 나게 묵직하게 만들었어요. 향곡 스님은 몸집이 커서 장군죽비로 내리치면 땅치 좋은 사람도 앞으로 쪽 꼬꾸라져요. 장군죽비로 죽을 정도로 맞아야 깨닫고야 말겠다는 분심에 비하면 아픈 것도 아니었지.”
공부 안 하고 그렇거렁 살다가 죽는 것은 평생 ‘송장 하나 지키다’가 가는 것임을 명심하란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보니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늙어서 이제 공부해야겠다 싶어 보면 그때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앉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것이 중생들의 살림살이다.
“오즈를 내가 한탄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새벽 예불을 올리는데 전에만 못해요. 춘성 스님은 팔십이 되었는데도 새벽 3시면 당신이 직접 새벽에 1시간씩 목탁을 쳤어요. 그때 도봉산이 저렇게 울리도록 목탁치고 염불했는데, 마치 사자가 ‘으흥으흥’ 하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옛날에는 지도급에 있는 스님, 수행력이 있는 스

님들이 먼저 첫새벽에 일어나 목탁을 쳤으므로 기상나팔이 되었고 모든 공부가 그것에서 시작 되었어요.”
부처님의 출가 목적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야 말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리에게 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임을 립했다. 대선 스님이 현대인들을 진단했을 때 ‘생로병사만큼 다급하고 급한 일이 없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심을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처님 앞에서 복 달라고 조르지만 죽을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다.
“죽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아서, 실제로 당해보지 못한 것이라 말로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죽는 것이 아직 먼 것 같지요? 나부터도 그래요. 오십대에는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지. 불가에는 백골관(白骨觀)이 있어요. 우리 중생은 있어버리는 속성이 있으니 대들보에 해를 하나 달아놓고 공부한다면 무상(無常)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힘 드는 일이니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육신이 영원할 것 같아 여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는데 그것이 바로 망상이요 헛된 꿈이란다. 시간은 살같이 지나가니 공부를 뒤로 미루지 말라

대선 스님은 ...

19세에 계룡산 감사에서 만공 스님의 제자인 해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도봉산 망월사에서 10년 동안 춘성 스님 시봉, 해인사 성철 스님 회상에서 10년 동안 정진. 그 후에도 금오 스님, 향곡 스님의 문하에서 공부. 20여 년 전부터 생가에 흥련암을 지어 정진. 완주 수봉산 기슭에 요덕사 정진원과 오도암 등의 선방을 지어 재가불자들을 지도.

는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옛날에는 법문 한 마디 듣기 힘들었어요. 요즈음 컴퓨터에도 텔레비전에도 전지가 법문으로 넘쳐나고 있어.”
“법문이 없을 때 오히려 공부인이 나왔다”는 스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하다. 스님의 말을 빌자면 ‘남이 침 발라놓은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것. 스스로가 실천수행하는 것만이 깨달음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란다.
요덕사의 대밭이 참으로 좋다. 산책삼아 푸른 대밭으로 걸어가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도인의 품모가 느껴진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마음 깊이 삼보를 공경하라. 삼보는 불·법·승이다. 즉 사상이 마침내 귀의할 곳이며, 만국의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어느 세상, 어느 누가 이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가. 매우 악한 인간은 적지만 이들이 이 법을 잘 가르치면 다르게 된다. 그러나 이 삼보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바를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은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574-622)가 제정했다는 일본 최초의 성문법인 ‘헌법 17조’의 두 번째 조문이다. 일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쇼토쿠 태자는 이처럼 불법을 비롯하여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마저 고대국가를 경영하는 데에 활용한, 문자 그대로 성덕을 베푼 이상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적인 면에서는 일본 최초의 여왕인 스이코(推古) 왕의 섭정으로 인정되어 앞의 헌법을 제정, 고대국가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점, 관위 12계를 제정, 인재를 고



구(舊) 일만 엔 지폐에 사용된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

지냈던 경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 글자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화 속 형상은 천태종 제2조 남양대사 혜사(慧思)가 주석했던 곳으로 후대에 태자가 혜사의 환생이라고 보는 신앙에서 유래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태자의 총명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불법이 동아시아 문화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설화에 따르면, 혜사와 태자가 같은 날 열반했다고 한다. 사실 혜사는 615년 고국으로 돌아가서 태자와 같은 해에 열반했는데, 이는 불법의 스승인 혜자와 제자인 태자와의 사이가 얼마나 깊었던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백제 혜충(惠聰)의 전법, 관록(觀勅)의 역서와 천문지리서 등의 전수 등은 물론 백제인들에 의해 최초로 완비된 당탑가람을 갖춘 아스카사(飛鳥寺)의 건립 등이 시기에 많은 문물교류가 이루어졌다.

태자 신앙은 일본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초(叡濟)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그가 활동한 히에산(比叡山)의 전통이 되었다. 새로운 종파

일본불교 시조이자 관음 화신으로 여겨져

루 등용하였다는 점, 역법·연대기를 작성하여 국사편찬을 시작하였다는 점, 동아시아 국가에 외교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의 안정을 꾀한 일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당시의 삼국과는 불교를 비롯한 여러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왕권국가의 확립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 설화나 전설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특히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후대의 태자신앙 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화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고구려의 승려인 혜자(惠慈)로부터 불법을 배웠는데 한 번은 <법화경>의 경문 가운데 한 자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혜자는 다른 나라의 경전에도 그 자구는 없다고 했다. 태자는 옛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전에는 있는데 그곳이 중국의 형산(衡山)에 있는 절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사신을 보내 그 경전을 가져오도록 했다. 형산에 이르러 3인의 노승이 기쁘게 맞이하여 함에서 경전을 꺼내 주었다. 이를 전달받은 태자는 자신이 쓰던 경전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문전에 들어가 7일날 7일밤을 입정해 들었다. 마침내 8일째 되던 날 책상 위에 한 권의 경전이 나타났다. 태자는 중국에서 가져온 경전은 내 제자가 가졌던 경전이며, 혼을 날려 가져온 지금의 이 경전이 바로 자신이

불교가 융성해지던 시기인 중세 카마쿠라(鎌倉)시대에는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현재 일본 최대 종파인 정토진종의 조사 신란(親鸞)은 29세에 교토(京都)의 육각당(六角堂)이라고 하는 절에서 백일수행 중 꿈속에서 태자의 계시로 정토종의 조사인 호넨(法然)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비승비속의 조사로 정토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법의 토착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쇼토쿠 태자는 일본역사는 물론 불교사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설화에도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삼경의소(三經義疏)>는 <법화경> <승만경> <유마경>에 대한 주석서로 그가 불교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태자의 비가 천수를 기원하며 수를 놓았다고 하는 천수국수장(天壽國繡帳)에는 세상은 허망하며 불법만이 진실하다고 하는 태자의 세간허가 유불시진(世間虛假 唯佛是真)이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정쟁이 잦았던 당시의 세태에 시달리면서도 불법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했던 태자의 심정이 들어있다. 이를 통해 태자야말로 불법의 의미를 깨달은 일본 최초의 불교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팩스 (02) 3672-7186

한국 불교 문헌의 대총서를 읽기 쉬운 우리말로 만난다.

신라 1 인왕경소 원축 | 백진순 옮김 | 신국판 | 800쪽 | 35000원

호국의 비범이 설해된 '인왕경'의 주석서이다. 원축 스님의 말년 작품으로서, 내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결국 외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고려 1 일승법계도원통기 권여 | 최연식 옮김 | 신국판 | 214쪽 | 12000원

한국 화엄학의 시조인 의상 스님의 법계도,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해설서이며, 권여의 저술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서 권여 화엄사상의 초기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고려 2 원감국사집 총지 | 이상현 옮김 | 신국판 | 480쪽 | 25000원

고려 말엽에 국사로 활약한 총지 스님의 시문집으로서, 선취적(禪趣)적인 사와 외세의 영향으로 곤궁에 빠진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식인의 고민을 보여 주는 시기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1 작법귀감 백파 공선 | 김두재 옮김 | 신국판 | 336쪽 | 18000원

‘작법귀감’이라는 제목은 불교의 제반 의식에 통용되는 의식문의 모범이요,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 의식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있어 불교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 2 정토보서 백암 성총 | 김중진 옮김 | 4x6판 | 224쪽 | 12000원

극락의 찬란한 모습과 그곳에 이르는 방법 등 정토신앙에 대한 교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으로, 엄불수행을 통해 극락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 3 백암정도찬 백암 성총 | 김중진 옮김 | 4x6판 | 154쪽 | 9000원

극락과 염불을 노래한 정토의 노래이자, 백암 성총 자신의 인생 여정과 수도의 과정에서 느꼈던 서정과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는, 종교성과 문학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조선 4 일본표해록 풍계 현정 | 김상현 옮김 | 4x6판 | 180쪽 | 10000원

천불을 조성해 경주에서 배에 싣고 해남 대문사로 거던 중 일본에 표류하여 겪은 일이 흥미 있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풍속과 일본인의 조선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요 언론이 주목한 10년간의 대장정, 그 첫 결실

한국불교전서의 한글본 완역은

조선왕조실록 완역과 같은 문화적 승격을 줄 것 - 문화일보

<일본표해록>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언을 담은 흔적 않은 책이다 - 경향신문

이 책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

분량만 24만 장에 달한다. 이중 80%가 한글 초역이다 - 중앙일보

향후 10년간 한글 번역본이 200~300권에 이르게 될 대장정 - 조선일보

10년 뒤 총서 완간되면 불교인식 바뀔 것 - 서울신문

우리말 옷 입은 1700년 한국불교 전역록 - 연합뉴스